

SIMPAC

VOL.56

모두가 꿈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불어 화합하고 나아가며
하나가 되는 길





생각을 여는 하루

스페셜 테마 04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1%는?

케이스 스터디 08
교육 및 네트워킹부터 선물까지!
'패밀리십을 높이는 온보딩'

팀워크 게임 12
SIMPAC홀딩스 IT & PI팀과 함께한 '팀장을 찾아라'

세대공감 16
신입사원을 위한 멘토링 시간
대화를 통해 세대를 잇다

함께 뛰는 심팩

현장 속으로
SIMPAC글로벌

심팩 인사이드
SIMPAC그룹 차세대ERP 프로젝트 종료 보고

ZOOM IN
-여의도 심팩빌딩에서 직원가족 불꽃축제 관람
-2023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참가

NEWS
뉴스 단신

마음을 나누는 우리

22 찾아가는 클래스 42
미리 크리스마스! 나만의 미니 트리 만들기 클래스
in 메탈BU 포항1공장

28 심팩인 플레이스 48
심팩인들을 위한 겨울 나들이 스포츠

32 안전한 하루 52
겨울철 전기·화재 안전사고 예방하기

36 북클럽 54
존 도어의 『OKR』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체통 58
독자 참여 이벤트



등록번호 56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23년 12월 29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4층
기획·편집·디자인 (주)대통기획
Tel. 02-2269-3613

사보 담당자
(주)SIMPAC홀딩스
김종일 매니저
jikim@simpac.com
(주)SIMPAC 메탈BU
조술범 매니저 054-271-8931
sbcho@simpac.com
(주)SIMPAC 프레스 BU
이도영 매니저
dylee@simpac.com
(주)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최한나 매니저 032-590-8905
hnchoi@simpac.com
(주)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김종철 매니저 054-271-8931
jckim@simpac.com
(주)SIMPAC글로벌
조정래 매니저 053-585-9782
jrjo@simpac.com
(주)SIMPAC홀딩스 ENG
박기원 매니저 032-590-2025
gwpark@simpac.com
(주)SIMPAC홀딩스 리즈텍비즈
이혜진 매니저 061-792-8812
hjinlee@simpac.com

화합 그리고 동행

우리가 하나되기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SPECIAL
THEME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 성과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팀 단위의 작은 조직부터, 계열사, 전체 그룹사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조직들이 힘을 합쳐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개인과 회사의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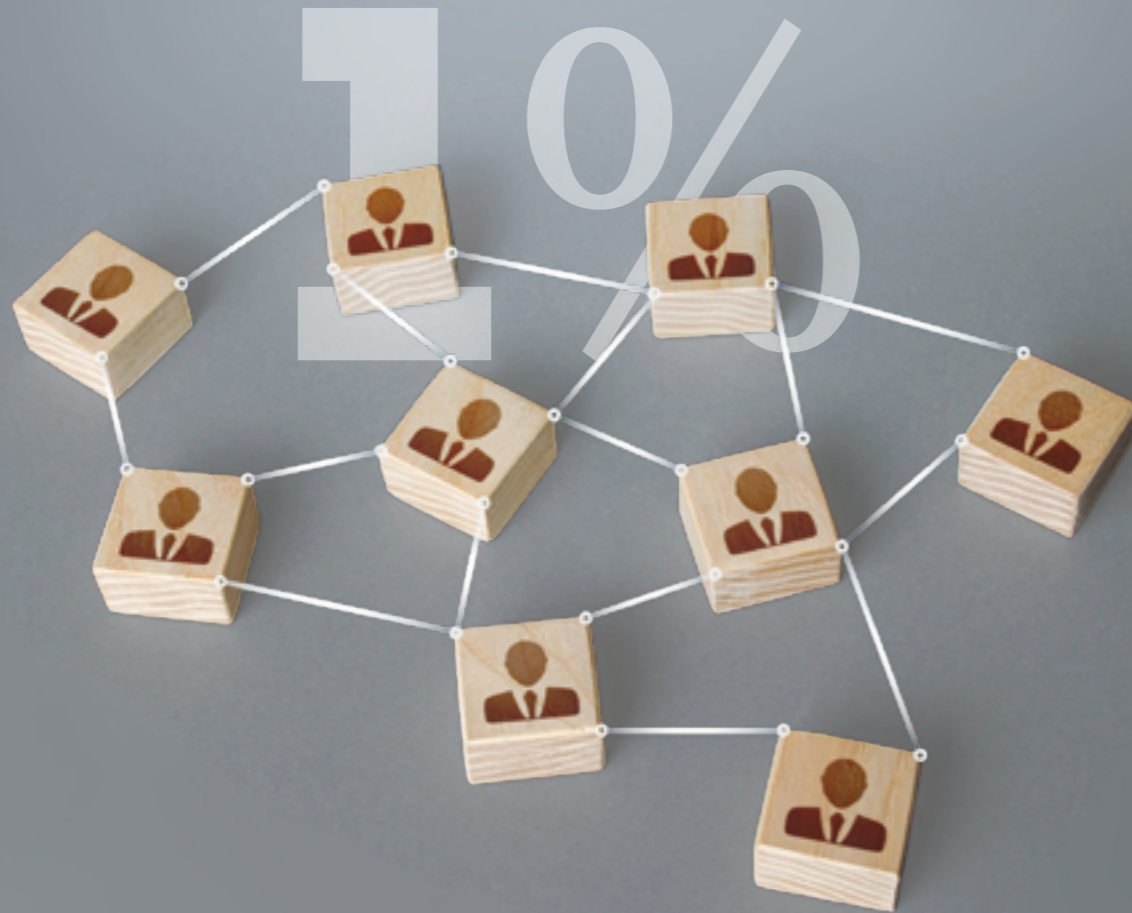
그러나 당장 눈 앞에 닥친 업무를 처리하기만도 바쁘고, 그동안 일해오던 틀을 깨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구성원 간의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치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SIMPAC그룹은 직원들의 헌신과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며 지속 성장 중입니다. 다만 체급이 커진 만큼 서로 간의 소통과 화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SIMPAC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상호 간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 이를 통해 SIMPAC 그룹이 진정한 하나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1%는?

SIMPAC이라는 이름 아래 전 구성원이 하나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우분들에게 그룹사 간 소통 점수와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1%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 1 각 그룹사간 소통과 화합의 정도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점 만점)
- 2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1%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4점

- 2 업무 특성상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하는 부서들도 있지만(ex. P팀이나 IT팀), 부서의 특성상 재직기간 동안 타 계열사와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부서도 있어서 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3 동일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거나, 비슷한 환경의 사업부(예를 들면 프레스BU와 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에서 먼저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너지 요소를 찾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점

- 2 각자 서로 맡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를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 3 같은 그룹 직원이라는 소속감



1 1점

- 2 전체 그룹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문만 달라도 교류가 거의 없다.
- 3 잦은 교류 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업무상 접점이 없는데 교류 목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애사심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소속감이다. 자랑스러운 무언가가 있어야 소속감이 고취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자랑스러울까? 누구나가 가고 싶은 회사에 다니는 나, 상상만으로도 멋지다. 일을 해보지도 않고 가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 바로 임금 개선이 우선일 것이다.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서는 초임의 현실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족방뇨식의 포상 보다는 근속별 퇴직연금 요율을 추가한다면 애사심이 깊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1 5점

- 2 사내에 좋은분들이 많습니다.
- 3 서로 배려하는 마음



1 4점

- 2 그룹사간 특정 업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류활동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교류를 하기 위한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3 SIMPAC그룹 내 소속감 및 유대감, 친밀감 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 SNS 형태의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icrosoft Viva Engage(Yammer)와 같은 솔루션을 추천하는데, 이는 페이스북 형태의 기업용 SNS로서 현재 SIMPAC그룹 내 구축되어 있는 Microsoft365 안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사 간 정보 공유, 칭찬하기, 자유로운 주제에 대한 토론 등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고 활발하게 활용이 된다면 그룹사 내 소속감, 유대감, 친밀감 등 좋은 감정들을 공유하고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SIMPAC그룹 내 임직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좋은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들어 추천 드립니다.

교육 및 네트워킹부터 선물까지! ‘패밀리십을 높이는 온보딩’



신규 직원들이 조직에 수월하게 적응하고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온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입사원뿐 아니라 경력사원을 위한 온보딩도 진행되며, 인수합병을 통해 한 가족이 된 경우에도 좀 더 빠르게 화합할 수 있도록 조직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직원들의 패밀리십을 충전하는 온보딩 사례와 온보딩 프로그램 준비 시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온보딩이란 무엇인가?

온보딩(onboarding)이란 새로 합류한 직원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하는 과정을 뜻한다. 조직과 새로운 직원 사이의 심적 거리를 좁히고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하며 빠르게 역량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온보딩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직원은 조직의 비전, 목표, 문화를 이해하고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다른 팀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업무 환경을 숙지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효과적인 협업과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신규 직원의 소프트 랜딩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조직 차원에서 온보딩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신규 직원이 조직에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것을 비행기 착륙 과정에 빗대어 ‘소프트 랜딩’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공채가 아닌 수시 및 경력직 채용을 하는 추세이다 보니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새로운 조직에 합류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신입사원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혀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고 조직 내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력사원의 경우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느정도 알고 입사했다고는 하지만, 기존 조직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다. 경력직인만큼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크지만 곧바로 성과를 내기란 어렵다. 하버드 경영 대학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각 분야의 리더 1천 명을 10년 동안 이직할 때마다 추적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리더들이 이직 직후에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리더뿐 아니라 대다수 이직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경력 입사자가 입사 이후 조직에 실질적 기여를 하게 되는 시점은 평균 입사 후 6개월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단순히 역량을 갖췄다고 해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SOFT
LANDING



국내외 기업들의 온보딩 사례

많은 국내의 기업들이 직원들의 소프트 랜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해외 기업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버디란 기존의 직원이 버디가 되어 새로 입사한 직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멘토 멘티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친구라는 의미의 버디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수평적 관계에서 온보딩을 지원한다는 뜻을 담았다. 버디는 우수한 직무 능력을 갖추고 조직 내 평판을 검증한 후, 입사자의 직속 상사와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매칭해준다. 두 사람은 3개월 동안 자유롭게 교류하며 직속 상사의 일하는 스타일, 보고 및 정보 공유 방식, 조직 내 각 팀 간의 히스토리 등을 전해 들음으로써 조직적 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선배 버디들이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가 과부하 되지 않게 조정해 주고, 버디 프로그램 참여가 리더십을 연마하고 지식 범위를 확장할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

아마존은 최종 합격 통보 이후 프리보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마존 프리보딩 플랫폼인 '엠바크 포털'에 접속하여 입사서류 작성, 노트북 주문 등의 행정 절차와 기본 오리엔테이션까지 입사 전에 온라인을 통해 여유롭게 진행된다. 아마존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퀴즈, 가이드북, 블로그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아마존은 '론치 플랜(Launch Plan)'이라고 하여 2장 정도의 문서를 제공하는데 신규 직원이 맡을 업무에 대한 설명과 만나야 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정리해 줌으로써 관계 형성과 업무 진행에 대한 조언, 일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 등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다. 아마존 역시 3개월 동안의 일대일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온보딩을 돕고 있다.

구글 역시 프리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팀의 리더가 신규 직원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입사 전날 HR팀에서는 팀장에게 온보딩 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지원 항목을 리마인드하는 메일을 전송한다. 온보딩 지원 체크리스트에는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논의, 신규 채용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버디 지정, 사내 관계 구축 지원, 6개월 간 한 달에 한 번 일대일로 온보딩 체크, 열린 대화 장려 등을 통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함으로써 조직 적응에 도움을 준다. 국내 기업들 역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규 직원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

한편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외에 기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조직 통합을 위한 온보딩 과정이 중요하다. 일례로 2022년 미니스톱을 인수한 코리아세븐은 두 조직을 통합하고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 'One Team, One Dream'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상호 구성원 간의 융합과 교감, 미니스톱 직원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웰컴 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했다. 통합 비전 선포식, PMI 교육 및 직원 간담회 등 통합 관련 설명회 자리가 다수 마련되었고 E-스포츠 대회, 통합 동호회 제도 등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다.



소속감을 더하고 회사의 가치를 담은 온보딩 키트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신입사원의 부모님께 꽃다발을 선물하고, 직원들이 회사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회사 굿즈를 만들어 나눠주는 등 온보딩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서도 신규 입사자에게 각종 사무용품과 실용적인 물품들로 구성된 온보딩 키트를 제공하며 소속감을 선사하고, 친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며 회사 PR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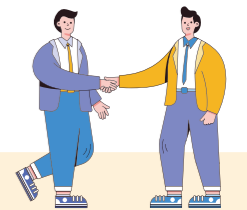
패션 플랫폼 기업 '무신사'는 신규 입사자를 환영하고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 철학과 정체성을 반영한 온보딩 키트를 제작해 선물하고 있다. 버려지는 데님 천을 업사이클링해 제작된 온보딩 키트는 노트북 파우치, 후드 집업, 사원증 케이스, 다용도 파우치, 볼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친환경이라는 기업 철학을 담았음은 물론 예쁘고 실용적이라 반응이 뜨거웠다고 한다.

'오투기'의 온보딩 키트는 신규 입사자가 조직에 순조롭게 적응하게 돕는 본래의 역할에 더해, 오투기의 경영 철학과 헤리티지 등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물품 선정과 구성에도 고객에게 쉬운 사용자 경험과 풍성한 만족감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핵심 가치 'Easy+Rich'를 반영했다. 노트, 펜, 메모지 등 업무 용품으로 구성된 'Easy Work'와 텀블러, 수저 세트 등 일상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은 'Rich Life' 섹션으로 구성해 식품 기업의 특성을 살렸다.



온보딩 준비 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효과적인 온보딩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POINT 1



첫째, 새로운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와 자원을 제공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자. 이를 통해 직원은 조직의 프로세스, 시스템, 도구 등에 익숙해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POINT 2



둘째, 조직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직원이 조직의 핵심 가치를 수용하고 조직 내 동료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온보딩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신규 입사자들 간의 네트워킹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OINT 3



셋째, 멘토링이나 지원 체계를 도입하여 새로운 직원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입사 이후 3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동안 직원의 성과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성장과 발전을 도와야 한다.

채용 과정에서는 각 지원자를 검증의 시선으로 살펴야 했지만, 채용 이후에는 한 가족이 된 만큼 직원 개개인을 전적으로 믿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 안에서 조직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직원의 이탈을 막는 등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SIMPAC그룹도 향후 온보딩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해 계열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SIMPAC홀딩스 IT & PI팀과 함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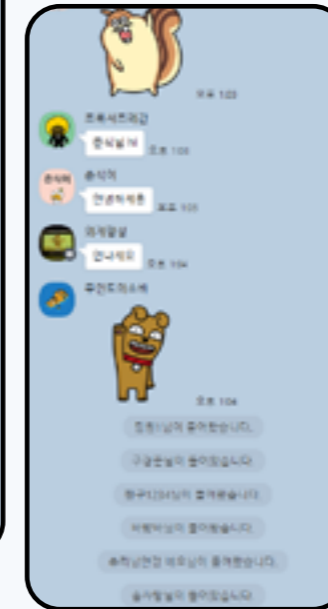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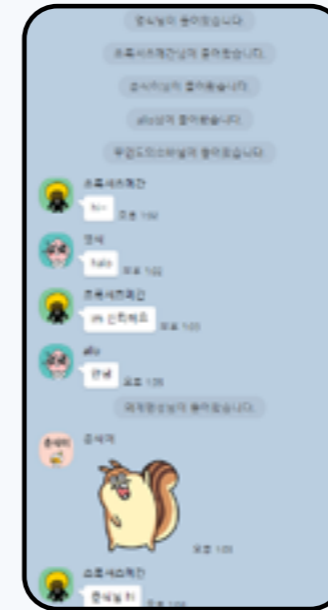
‘팀장을



찾아라’

우리는 함께 일하는 팀원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익명 채팅방에 모인 SIMPAC홀딩스 DT실의 IT팀과 PI팀 총 11인!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정체를 추리하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12월의 어느 오후, SIMPAC홀딩스 IT & PI팀 직원들이 익명 채팅방에 모였다. IT팀 현창우 팀장의 주도로 이날 ‘팀워크 게임’을 함께하게 된 IT팀과 PI팀은 평소 업무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었다.



PM 13:10

#입장

서로의 정체를 알아챌 수 없도록 닉네임을 달고 채팅방에 들어온 직원들은 서로 인사를 건네며 탐색전을 시작했다.

PM 13:15

#우리 안에 팀장님이 있다!

#팀장VS팀원 #숨은 팀장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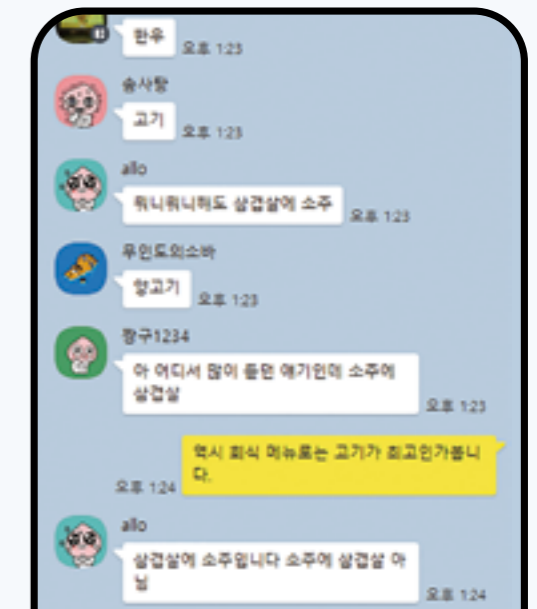
비밀 채팅방에 모인 팀원들은 본격적으로 질문에 답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대화를 나누는 동시에 채팅방에 있는 11명 중 진짜 팀장 2명이 누구인지를 추리했다.

요즘 나의 최고 관심사는

여자친구, 육아, 비용절감, 크리스마스, 다이어트, 여행, 잠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온 가운데, ‘잠’이라고 대답한 두 사람의 정체는 벌써 알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심지어 손목을 걸겠다는 화끈한 답변까지! ‘비용절감’이라고 대답한 ‘초록셔츠메간’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저희 윗분께서 매년 하시는 말씀이셔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는데, 과연 그 윗분은 누구일까?

팀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회.메.추를 해본다면?

회식 메뉴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닭발, 양고기, 참치, 소고기, 한우, 삼겹살에 소주, 회 등의 답변이 나왔는데, 역시 회식 메뉴로는 고기가 최고임을 알 수 있었다. ‘소주에 삼겹살’이라는 대답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벌써 정체를 들킨 게 아닌가 싶다.





이어폰을 끼고 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유형의 질문을 건네 봤다. 개인의 자유, 한 쪽만 끼면 괜찮다, 전화할 때는 괜찮다, 주변 호출을 듣지 못할 정도로 음악 등을 듣는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들 조금씩 생각이 달랐지만, 이어폰을 끼더라도 불렀을 때 대답이 가능한 정도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팀장님의 MBTI를 추측해본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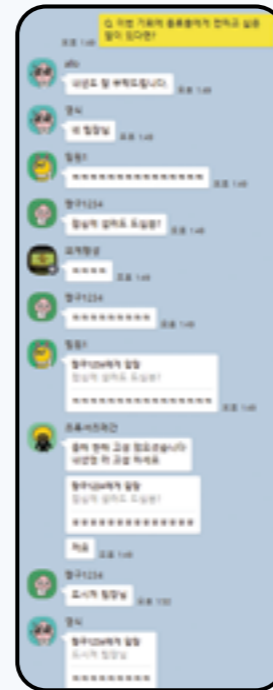
MBTI 질문에 순간 정적이 찾아온 채팅방에 오픈북 요청이 들어왔다. MBTI별 특성을 한 장에 요약한 이미지를 공유한 후 '무인도의소바'님은 ESTJ라고 생각하는 ESTP인거 같다고 답변했고, 'allo'님과 '솜사탕'님이 MBTI에 대해 잘 알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명이 거론되기도 하는 등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 팀장님은 ISFJ인 것 같다, ENFJ인 것 같다는 대답에 '초록셔츠메간'님은 '너 IT팀이지?'라고 응답했는데, 벌써 정체를 들킨듯하다.

팀장님에게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초록셔츠메간'님이 '일 좀 적당히 시키셨음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자마자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들이 차례로 올라왔다. 이때 '바밤바'님이 올린 장문의 메시지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짧은 시간 내에 장문의 편지가 가능했던 건 'allo'님의 추측대로 챗GPT 덕분이었다. IT & P팀답게 오픈소스의 힘을 빌려본 순간적인 센스가 돋보였다

이번 기회에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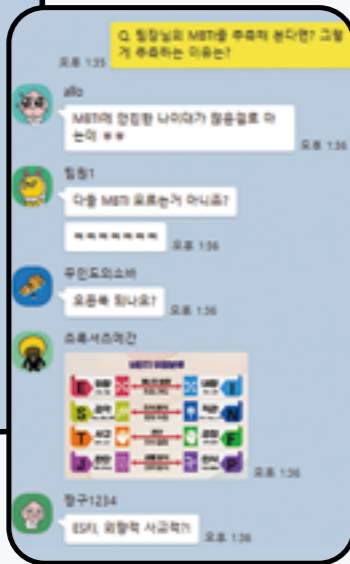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인사가 오가던 중, 점심에 샐러드를 함께 먹을 파티원(?)을 구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쯤 되니 서로의 정체도 거의 파악한 것 같다. 조만간 두 사람이 함께 샐러드를 먹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듯하다.



PM 13:50

#팀장 찾기 투표 결과는

익명 채팅방에서의 대화를 통해 누가 누구인지 추측이 이어진 가운데, 채팅방 내 투표 기능을 통해 팀장님인 것 같은 두 사람을 고르도록 했다. 두 팀장이 1, 2위를 차지하면 팀원들이 승리하게 되는 가운데, 투표 결과 이번은 없었다. '초록셔츠메간' 10표, 'allo' 9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수가 나왔다! 현창우 팀장은 '감쪽같이 속였다고 생각했는데'라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팀원들은 '두 분 팀장님께서 첫 마디 하시자마자 알았다'고 말했다. 팀장VS팀원 대결의 승자는 일찌감치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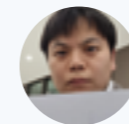
AFTER GAME

게임이 끝나고 난 뒤, 승리를 차지한 팀원들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했다. '팀워크 게임'에 함께한 IT & P팀 팀원들에게 참여 소감을 들어보았다.



IT팀 현창우 팀장(초록셔츠메간)

늘 업무 이야기만 하느라 웃을 일이 많이 없었는데 정말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맞혔네요 ㅎㅎ 오랜만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IT팀 정철우 매니저(츄리닝안경 네오)

수고 많았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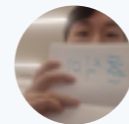
IT팀 이혜원 매니저(영식)

익명이지만 팀원들끼리 선을 넘지 않으며 적절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이벤트를 하면 팀원 간에 친밀함이 더욱 생겨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IT팀 김보혜 매니저(솜사탕)

IT팀뿐만 아니라 P팀원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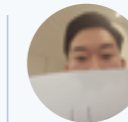
IT팀 송준혁 매니저(춘식이)

오늘 익명 소통 너무 재밌었고 이런 기회가 종종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팀 서서영 매니저(팀원1)

덕분에 잠깐이라도 함께 재밌게 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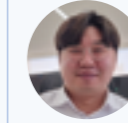
P팀 이규현 팀장(allo)

심팩에 함유한지 얼마 안된 새내기(?)인데, 이렇게 재밌고 의미 있는 이벤트를 열어 주셔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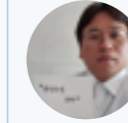
P팀 조태형 매니저(외계행성)

간만에 웃을 수 있는 가벼운 시간이어서 직장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P팀 김광현 매니저(짱구1234)

팀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P팀 김태호 매니저(무인도의소바)

게임이 신선했고 팀원들의 유대감을 증대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팀 송치문 매니저(바밤바)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승리를 거두어서 기분이 좋았고 재미있었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였습니다. 이미 대략적인 성향은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부분까지 알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품권을 주셔서 좋았는데 살림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상품권 게임 아니, 팀워크 게임을 저희 팀에서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팀워크 게임'에 함께한 IT팀과 P팀의 팀워크 향상을 위해,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했다. 모두가 함께한 치킨 파티 인증샷과 후기를 전한다.

IT팀 현창우 팀장

덕분에 다 같이 맛있는 식사 잘 했습니다. DT실(IT/P팀)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신입사원을 위한 멘토링 시간 대화를 통해 세대를 잇다



MENTORING

X세대, MZ세대 등 각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대별 생각의 차이나 개성은 각양각색이다. 젊음을 표방하던 X세대는 어느새 직장 내 상사로 올라섰고 현재 신입사원인 MZ세대와 소통하지 못해 갈등을 빚기도 한다. 그러나 오해와 갈등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술술 풀리기 마련, SIMPAC글로벌의 X세대 김영주 팀장과 MZ세대 신입사원 김하은 매니저와 함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영주 팀장 안녕하세요? 영업2팀 김영주 팀장입니다. 현재 SIMPAC글로벌 총괄 관리 및 영업2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재 구입 및 제품 판매, 거래처 관리가 주 임무입니다. 2015년도에 입사하여 벌써 10년 차가 되었는데요, SIMPAC 홀딩스, SIMPAC 프레스BU, SIMPAC인더스트리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SIMPAC글로벌에 합류하였습니다.

김하은 매니저 안녕하세요? 경영관리팀 김하은 매니저입니다. 저는 현재 SIMPAC글로벌의 경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매입·매출 관련 업무 및 자금·지출 등 회계 업무를 하고 있어요. 2023년 8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인데요, 아직 낯설고 서툰 점이 많지만 열심히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배님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싶습니다.



김영주 팀장

후배에게 묻는다

아직 회사 생활에 적응 중일 것 같은데요,

업무 중 실수를 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실수를 수습했나요?

김하은 매니저 처음 입사했을 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가 많아요. 저는 회계 담당으로 입사를 해서 그쪽 교육만 받고 들어왔는데 현재 SIMPAC글로벌의 상황상 제가 소화해야 할 다른 업무들도 많다 보니... 예를 들어 배차를 잘못 한다거나 거래처에서 문의가 와서 대응을 하는 도중에 잘못된 정보를 준다거나 하는 실수들이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영업 나간 선배님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더 많은 실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회사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서로 힘든 부분을 알기 때문에 잘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회사 업무에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자잘한 실수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IMPAC글로벌에 가장 늦게 합류한 막내 직원인데요,

함께 일하는 선배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하은 매니저 선배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빠르게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업무에 관해 저보다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빠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업무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사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김하은 매니저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SIMPAC글로벌이 작년에 SAP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입사하게 되었는데, 원래 회계적인 부분을 맡기 위해 들어왔는데 회사의 인원이 극소수다 보니 영업팀 지원 업무도 하고 있어요. 선배님들이 영업을 위해 외부에 다 나가셨을 때 업체에서 급한 업무로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외부에 있는 선배님에게 전화를 걸어 양쪽을 조율하는 업무도 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업무를 하면서 영업 지원까지 하는 게 쉽진 않죠. 업무 분장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요. 하루빨리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업무 분장이 원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일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선배님께서 실수했을 때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김영주 팀장 실수를 알아차리면 숨기기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면 최대한 빨리 실수를 바로잡고,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는 선임자에게 즉시 알려 조치를 받았어요. 작은 실수를 더 큰 실수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점은 꼭 유념했으면 한다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김영주 팀장 요즘 신입사원들은 말을 할 때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기주장도 강해요. 이런 면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우리 업계에서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회사에서는 매일 들고 나는 거래처 기사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대부분 거래처 사람들이 나이도 좀 있고 업계 특성상 말투가 거친 사람들도 많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웃으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스트레스겠지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조금 더 상대방이 잘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직장 생활 꿀팁이 있나요?

김영주 팀장 회사는 함께 일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선후배들과 잘 지내야 직장생활이 즐거워요. 특히 선배들과 일할 때는 선임자들의 캐릭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할 때는 서로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사의 업무 스타일을 파악해서 대처하면 좀 더 원활한 사회생활이 가능해요. 일의 진행 상황을 먼저 보고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구두로라도 선보고 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료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근거 자료와 데이터를 꼼꼼하게 수집한 후 보고를 드리면 일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김하은 매니저

선배님 궁금해요!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김영주 팀장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근무 환경이 많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어요. 시스템도 미흡하고 업무도 많고 주변에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식사를 하려고 해도 멀리 나가야 하는 점 등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퇴근할 때 영업직들이 다 나가면 사무실에 남아 있는 여직원들이 문을 닫고 퇴근해야 하는데 야드가 넓어서 문을 닫는 간단한 일도 힘들어요. 무거운 철근을 당겨서 걸어야 하니까요. 요즘은 겨울철이라 6시만 돼도 주변이 캄캄해서 무섭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서로 힘을 합쳐 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힘든 일이 있다면 혼자 속앓이 하지 말고 언제든지 먼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회사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볼게요.

함께 뛰는

한/컷 화보1 심팩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심팩인들의 노력이 모여 심팩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호 '함께 뛰는 심팩' 섹션에서는 '현장 속으로'를 통해 신생 계열사인 SIMPAC글로벌의 업무 현장을 살펴보고, 사내 주요 행사 소식들을 전합니다.

탄소중립 시대, 국내 철스크랩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다



SIMPAC글로벌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과 녹색경영이 강조되는 오늘날, 국내 철강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SIMPAC 메탈사업부는 지난 2021년 SIMPAC글로벌을 설립하고 철스크랩 관련 기업을 합병하여 철강 산업 저탄소 원료인 철스크랩, 비철금속 등의 구매·재생 및 국내외 판매에 나서고 있다. SIMPAC글로벌이 하는 일과 주요 업무, 판매하는 상품 등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SIMPAC글로벌의 탄생

SIMPAC글로벌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자원순환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한다는 비전 아래 설립되었다. 최근 탄소 중립과 ESG 경영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스크랩을 미래 친환경 순환경제의 핵심 소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스크랩이란 쇠부스러기, 파쇄 등을 일컫는 말로, 철광석, 원료탄과 함께 철강 산업의 3대 원료 중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철스크랩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철스크랩은 전기로에 사용되는 제철 원료인데, 전기로는 철광석과 유연탄을 이용하는 고로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제철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재 철강업의 탄소중립 목표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고로의 철스크랩 사용 확대와 전기로 전환 투자다. 그러나 국내 철스크랩 자급률이 낮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SIMPAC글로벌은 이러한 국내 철스크랩 산업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IMPAC글로벌은 앞으로 공급망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우호적인 협력과 선진 경영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으로 스크랩 재활용 산업의 가치 제고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스크랩 업계의 슈퍼마켓을 꿈꾸다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위치한 SIMPAC글로벌은 총 34,427제곱미터(m²)의 야드와 최신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생철스크랩과 노폐스크랩을 매입하여 압축설비를 통해 압축·가공을 하여 제강사에 판매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전반적인 사무 관리를 하는 경영관리팀과 매입·매출관리를 하는 영업팀, 야드 관리 및 제품 생산을 하는 생산팀 등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부분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도 많다. 업무분장이 뚜렷하지 않고 효율적인 내부 시스템도 미흡하지만 직원들은 신생 업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도기라 생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덕분에 2023년, 설립 2년 만에 약 3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도 매입·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실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SIMPAC글로벌은 2030년까지 고객이 원하는 스크랩을 언제, 어디서든, 경쟁력 있게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월 20만 톤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전국 거점 야드를 7개까지 늘려 스크랩 업계의 '슈퍼마켓'이 되는 것이 목표다.



국내 스크랩 업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SIMPAC글로벌의 노력

아직까지 국내 철스크랩 산업생태계는 취약성이 많다. 첫째, 주요국들의 철스크랩 자급률은 100%에 가까운 반면, 국내는 86%로 수입의존도가 높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인 수요를 위해 철스크랩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MPAC글로벌이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 수요-공급업체 간 철스크랩 거래구조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철스크랩은 공장에서 일정하게 제조되는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 길이, 두께, 함유 성분 등이 모두 달라서 등급을 정확하게 구분하기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물론 철스크랩 공급업체와 수요업체 간의 거래 기준을 표준화하고 품질 검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국가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주는 KS인증 제도가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주관적인 판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SIMPAC글로벌은 철스크랩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관적인 등급 판정을 최소화하여 수요-공급업체 간 철스크랩 거래구조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드론 검수 시스템을 활용한 객관적인 검수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는 AI 검수를 도입하여 철스크랩의 선별 및 분류를 철저히 하고 있다. AI 드론 검수 시스템이 도입되면 양질의 철스크랩을 객관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납품 품질의 향상을 가져와 매출처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SIMPAC글로벌은 국내 철스크랩 산업생태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업계 1위로 성장하기 위하여

SIMPAC글로벌 직원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수시로 10톤이 넘는 트럭들이 현장을 오가고 다양한 고철이 적재해 있기 때문에 한시도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팀에게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다. 더불어 안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윤리적 마인드'다. 물론 SAP 시스템 도입을 통해 회계를 투명화하고, 그 밖에도 계량시스템이나 성분분석도 모두 기계화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없다면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SIMPAC글로벌 직원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속이거나 기만하면 결국 나중에 더 큰 화로 돌아온다는 마인드로 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열정'은 SIMPAC글로벌 직원들이 빼놓을 수 없는 덕목으로 여기고 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신생 업체다 보니 어려움이 많지만 함께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직원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올해 초 일본에서 철스크랩을 수입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직원들이 포항항에 가서 직접 하역하는 걸 확인하면서 배차하고 입고하였다. 그때가 3월 초였는데 작업이 밤까지 이어지다 보니 기운이 많이 떨어져서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덜덜 떨었던 일은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



는 기억이다. 이런 에피소드만 보더라도 SIMPAC글로벌 직원들이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SIMPAC글로벌의 최근 업무상 주요 이슈는 '길로틴'이라는 추가 설비를 도입 예정이라는 것이다. 길로틴은 압축할 수 없거나 압축이 불편한 모재의 경우 절단 작업을 통하여 다른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신규 장비로, 2024년 4월경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길로틴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매출액이 현재 대비 3배 이상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IMPAC글로벌은 현재 대구 야드 입지를 공고히 하여 대구·경북권 TOP 5 Leader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후 월 20만 톤 공급망 구축과 전국 거점 야드 7개를 운영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경영관리팀
조정래 매니저

내·외부 관리 및 영업, 야드 관리 지원 등 SIMPAC글로벌의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회사가 계속 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다양한 업무를 하며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초 SIMPAC글로벌에 합류하였습니다. 사무직원들과 현장직원들을 모두 상대하는 만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여 SIMPAC글로벌의 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매입한 물건이 야드에 들어오면 상하차를 하고 구획별로 적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중장비를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제 역할을 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팀
김용규 과장



생산팀
김명덕 과장

모재를 압축기에 넣어 압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압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안전에도 유의하고 있다.
“SIMPAC글로벌이 짧은 기간에 업계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회사의 성장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SIMPAC글로벌을 스크랩 업계의 일류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SIMPAC

SIMPAC그룹

차세대ERP 프로젝트 종료 보고

지난 6월 30일, 여의도 심팩빌딩 15층 라운지에서 2021년 12월부터 7개월 동안 진행된 SIMPAC그룹 차세대ERP 프로젝트의 종료 보고가 있었다. 본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중계되어 전국 각지 사업장에서 함께 발표를 지켜봤다. SIMPAC그룹은 차세대ERP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이룩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끝이 아닌 시작.

차세대ERP 도입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SIMPAC그룹

이날 행사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삼성SDS 이규현 PM의 'SIMPAC Group 차세대ERP 프로젝트 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각 파트별로 차세대ERP 도입 결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P팀 소속 김광현, 송치문, 김태호, 조태형 매니저가 차례로 나와 'P-Type 표준 원가 활용방안과 향후 목표', 'M-Type 업무 프로세스 확립', 'SIMPAC Group 결산기간 단축', 'SIMPAC Group 자금 Risk 관리'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차세대ERP 도입을 통해 업무 영역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어서 IT팀 현창우 팀장은 'SIMPAC DX Journey'를 주제로 차세대ERP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SIMPAC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으로 SIMPAC그룹 DX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민찬 상무가 나와 'SIMPAC Data Analytics'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차세대ERP 시스템 도입이 경영진과 IT 관련 부서 소속 직원들에게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업무 진행 프로세스 개선과 개인 역량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





“SIMPAC그룹이 성장하는 데 차세대ERP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프로젝트 파트너인 삼성SDS 입장에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중견기업과 함께한 성공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다음 순서로 ‘클래스 있는 기업의 조건’이라는 타이틀로 삼성SDS 주호석 수석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주 수석은 “클래스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축적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회사의 역량을 키우고 기업 문화를 바꿈으로써 계획과 실적을 관리하는 클래스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삼성SDS 박민우 상무의 강평과 SIMPAC 최진식 회장의 총평을 끝으로 주요 식순이 마무리되었다. 최 회장은 “ERP를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며 “SIMPAC그룹이 성장하는 데 차세대ERP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프로젝트 파트너인 삼성SDS 입장에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중견기업과 함께한 성공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DX의 시작점, 차세대ERP 프로젝트의 여정

차세대ERP 구축은 SIMPAC그룹 DX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SIMPAC그룹은 차세대ERP 도입을 통해 그룹사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시스템 기반의 업무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자동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며 핵심 업무를 지원할 것이다. 나아가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비즈니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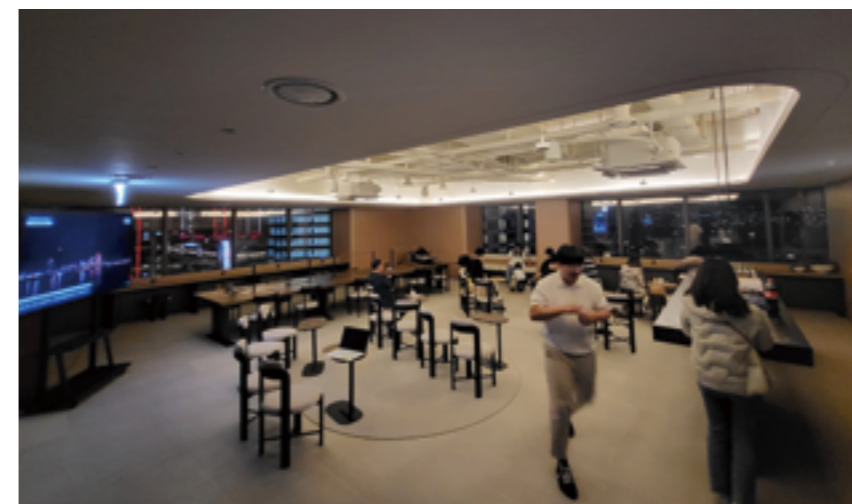
SIMPAC그룹이 기존에 사용하던 ERP 시스템은 사업부별로 통합 운영이 힘들고,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류나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엑셀 등 수작업이 많아 사고 발생의 위험 요소도 있었다. 이에 회사의 성장과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직원들 간의 원활한 업무 내용 공유가 가능하고 짜임새 있고 철저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성공적인 차세대ERP 구축을 위해 ‘ERP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SAP’, 삼성그룹의 ERP 구축 경험을 보유한 삼성SDS와 파트너십을 맺고 TFT를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들은 키포프 단계에서부터 3P(Process, Program, People) 전략을 세웠다. ▲SIMPAC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표준화하고 ▲SIMPAC에 맞는 Simple & Compact한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SIMPAC의 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후 재무, 관리, 영업, 구매, 생산의 5개 영역에서 총 28건의 문제를 도출하여 이를 10개의 혁신 과제로 포착하고 ▲재무 프로세스 통합 ▲적시·정확한 원가 ▲물동 프로세스 표준화의 3대 혁신 방향을 도출했다. SIMPAC의 다양한 사업부의 물동 프로세스를 P-Type(주문형), M-Type(주기형), B-Type(기본형)으로 표준화했다. 2022년 5월 Process Innovation 종료 보고 이후 3가지 혁신 방향에 따른 12개 혁신과제를 도출했고, 2023년 1월 SAP ERP와 6개 연계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아키텍처를 완성하여 차세대ERP를 오픈했다. 그리고 6월 30일 진행된 차세대ERP 종료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의 준비 과정과 오픈 이후 경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 차세대ERP를 통한 SIMPAC인들의 업무 혁신을 기대해본다.

ZOOM IN ①

2023 세계불꽃축제 당일 직원 가족에게 여의도 심팩빌딩 라운지 개방

2023 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10월 7일, 여의도 근무 임직원과 가족들이 불꽃축제를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여의도 심팩빌딩 15층 라운지를 개방했다. 오후 2시부터 개방된 라운지에는 임직원 동반 8가족이 방문하였으며, 따뜻한 실내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아름다운 불꽃을 관람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SIMPAC은 추후 다른 사업장의 임직원들도 불꽃축제 행사 당일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참여 소감



PI팀 조태형 매니저

“불꽃축제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구성원 가족끼리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 및 다과를 준비해주신 회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IT팀 이혜원 매니저

“12년 전 여의도 불꽃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매우 혼잡하고 위험했던 경험이 있어 다시는 보러 오지 않겠다 다짐했었는데, 심팩빌딩 라운지 개방 덕분에 가족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주신 덕분에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ZOOM IN

SIMPAC그룹 '2023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참가

SIMPAC그룹은 지난 7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B1홀에서 열린 '2023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해 구직자들을 만났다.



'2023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다. 중견 및 중견후보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및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고 중견기업 구직 희망자에게 채용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 박람회다. 이날 행사에는 SIMPAC 등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 약 100개사가 채용 부스를 운영했고, 1만여 명의 구직 희망 청년이 참가했다.



박람회 당일 당사 채용 부스에는 총 61명이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채용 관련 약 24곳의 학교와 공공기관 등이 방문하여 당사 채용에 관심을 표했다. 그룹 차원에서 최초로 참가했던 2022년 박람회 대비 실제 오픈된 채용 포지션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인력이나 상담 요청 건 등을 감안하면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홍보 효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SIMPAC그룹은 더 많은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학 취업 박람회 및 내년도 일자리 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할 계획이다.



SIMPAC 프레스BU

1

SIMPAC, 중국 서보모터 제작사 NINGBO PHYSIS와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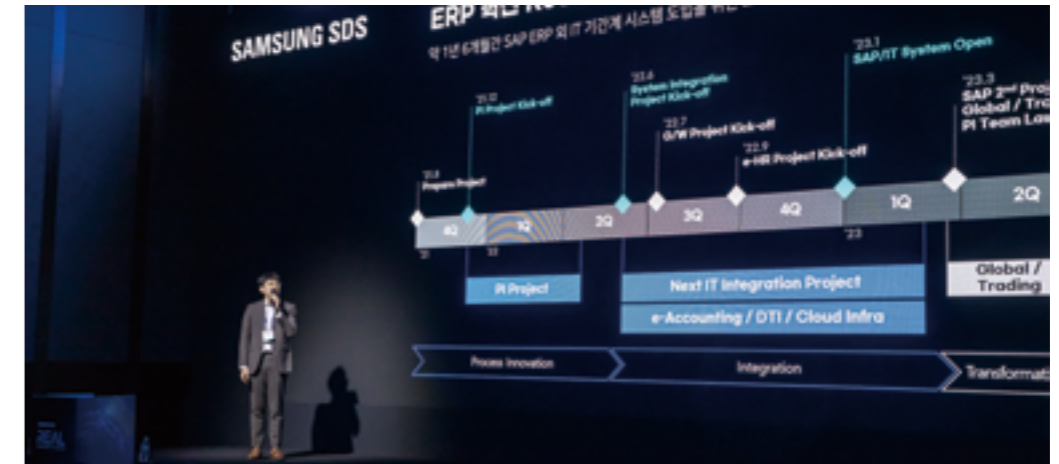


2023년 8월 29일, SIMPAC 프레스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중국 서보모터 제작업체인 NINGBO PHYSIS(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식(MOU)이 진행되었다. SIMPAC 측에서는 구매본부장, 구매팀장, 구매혁신팀장 등이 참석하였고 NINGBO PHYSIS에서는 부사장, 영업이사, 영업팀장이 참석해 상호 회사 소개 및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이 끝난 후에는 SIMPAC의 R&D센터 임직원 참여 하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NINGBO PHYSIS는 중국내 BYD등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에 전기모터를 납품하고있는 회사로 SIMPAC SERVO PRESS의 심장을 담당하는 SERVO MOTOR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SIMPAC그룹

2

SIMPAC IT팀, 삼성 SDS Real Summit 행사에서 차세대 ERP 프로젝트 사례 발표



지난 9월 12일에 열린 삼성 SDS Real Summit 행사에 SIMPAC IT팀 현창우 팀장이 참석하여 SIMPAC의 차세대 ERP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삼성 SDS Real Summit은 비즈니스 혁신과 미래 대비를 위한 기술과 인사이트를 담은 키노트와 여러가지 실사례들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SIMPAC은 중견기업의 대표 DX 사례로 선정되어 이번 행사의 '사례로 들여다보는 차세대 ERP 디지털 전환 Success Story' 순서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SIMPAC그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차세대 ERP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삼성SDS와 함께 2021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9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SIMPAC그룹 프로세스 혁신(PI) ▲차세대 ERP(SAP) 및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부(글로벌/트레이딩) 고도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업무프로세스를 통합 및 재정립했다

SIMPAC 메탈BU &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 BU

3

포항공장 봉사 동호회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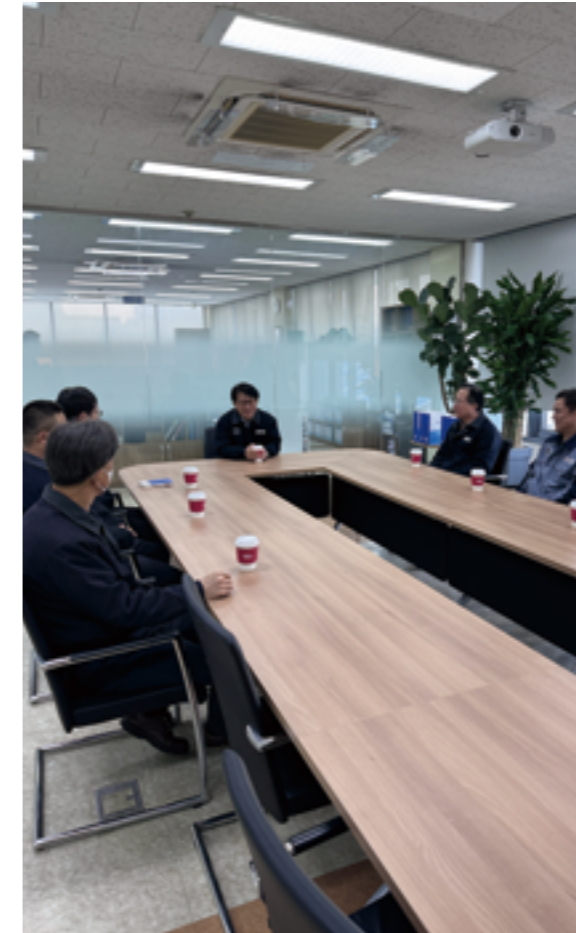
지난 10월 28일 SIMPAC 메탈BU &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포항공장 봉사 동호회 심봉사(심팩봉사단)는 포항시 관내 독거노인 및 차상위 가정을 위한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매년 심봉사는 SIMPAC 창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웃사랑을 나누고자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포항시 용흥동 일대 취약 계층 대상으로 8가정 총 4,000장(1가구 당 500장)의 연탄을 나눔했다.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연탄을 구매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을 돕고, 이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덜어드려 안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봉사가 진행됐다. 심봉사는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매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SIMPAC 프레스BU

4

SIMPAC 프레스BU 임직원 수능 수험자녀 축하 선물 증정식



지난 11월 15일, SIMPAC 프레스BU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을 치르는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격려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격려 자리에는 해당 임직원 총 6명이 참석하였으며, 각 임직원 간의 네트워킹 시간과 심웅섭 사장의 격려 말씀이 있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방영업소 인원을 포함하여 수능 수험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선물 증정이 이루어졌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SIMPAC인더스트리

5

SIMPAC인더스트리- SIMPAC산기 합병



SIMPAC인더스트리가 SIMPAC산기를 흡수합병했다. 합병을 통한 경영자원 통합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다. 이번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합병 이후 SIMPAC인더스트리의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SIMPAC인더스트리는 2022년 8월 SIMPAC로지스틱스를 같은 방식으로 합병한 바 있다.

마음을 나누는

한/컷 화보2 우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 소통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번 호 '마음을 나누는 우리' 섹션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둘러 앉아 나만의 미니 트리를 만들어본 '찾아가는 클래스' 현장부터, 가족·친구·연인과 함께하기 좋은 겨울 나들이 스팟 소개, '안전한 하루', '복클럽' 등 정보성 코너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나만의 미니 트리 만들기 클래스

in 메탈BU 포항1공장

지난 12월 6일, 메탈BU 포항1공장 1층 대회의실에서 특별한 수업이 열렸다. 사전 신청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하여,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한 것이다. 나만의 개성만점 트리를 만들며 보낸 힐링의 시간을 들여다보자.



촉백나무 가지를 꽃아 만드는 나만의 미니 트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겨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어느 오후, 포항 내 SIMPAC그룹 계열사인 메탈BU 1·2공장과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 공장에 근무 중인 직원들 13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매일 업무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원들에게 특별한 체험의 기회와 힐링의 시간을 전하기 위해 '찾아가는 클래스'가 회사 안으로 찾아온 것이다! 이날 수업은 시즌에 맞춰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수업 시작 시간인 오후 2시에 맞춰 대회의실을 찾아와 자리에 앉은 직원들은 테이블에 세팅된 준비물을 살펴보고 '잘 만들 수 있을까?' 걱정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미니 트리를 만드는 데에는 촉백나무 가지를 사용했다. 촉백나무 가지는 최대 2주까지 물을 주지 않아도 시들지 않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소재다. 길을 가다 종종 만날 수 있는 나무이며, 원예치료용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본격적으로 트리를 만들기 전, '촉백나무 잎을 위로 살살 쓸어 올리면 숲 속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며 잎을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다'는 강사의 설명에 다들 따라하며 촉백나무 향기를 맡았다.

촉백나무 가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시들 수밖에 없다. 때문에 꽃꽂이를 할 때에는 식물의 생기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플로랄폼을 사용한다. (플로랄폼은 오아시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는 사실 특정 브랜드의 이름이다.) 녹색 스펀지처럼 생긴 플로랄폼은 물에 적시면 수분을 오랫동안 가득 머금고 있어, 플로랄폼에 식물의 가지를 꽂아주면 더 오래 두고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플로랄폼은 건조할 때는 매우 가볍지만 물에 적시면 엄청난 수분을 흡수하여 무거워진다. 칼로 쉽게 잘라 쓸 수 있고, 식물을 원하는 모양대로 꽃을 수 있어 예쁜 모양을 잡기도 편하다.



쉽지만은 않지만, 정답은 없다

일단 플로랄폼을 투명 OPP 필름으로 감싸는 것부터 미니 트리를 만들기 위한 기초 공사를 시작했다. 물을 주더라도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하는 것이다. 하루에 한 번 종이컵 1/3 정도의 물을 플로랄폼에 살짝 부어 적셔주면 최대 2달까지도 잎이 마르지 않고 푸른 빛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플로랄폼의 아래와 옆면을 필름으로 감싸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해준 다음 크리스마스풍의 예쁜 포장지로 겉면을 다시 감싸줬다. 포장지의 모양을 예쁘게 잡아준 후 리본을 묶어주면 기초 공사는 완료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가지를 꽃아줄 차례다. 잎을 들고 가지 끝이 바깥쪽으로 가게 한 후 원예용 가위를 이용해 사선으로 잘라준다. 가지의 단면이 넓을수록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지 끝을 자르고 시간이 지나면 말라붙어 플로랄폼에 꽃더라도 물 올림이 안되기 때문에 자르자마자 꽃아주는 것이 좋다. 휘어 있는 가지는 손끝의 열기를 전해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사지해주면 모양을 펴 줄 수 있다. 약 1cm 깊이로 플로랄폼에 꽃아주는데, 전체 높이가 30cm가 되지 않는 정도여야 테이블에 놓았을 때 시선을 가리지 않아 적당하다.

촉백나무 잎을 자세히 보면 좀 더 반짝이는 쪽이 앞면, 광택이 덜하고 납작한 쪽이 뒷면인데, 방향을 잘 보고 한쪽으로 꽃아주도록 하자. 나무 형태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길고 아름다운 가지를 골라 중심에 꽃아준 후, 중심점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전체적으로 삼각형을 이루도록 꽃아주면 예쁘고 풍성한 나무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정답은 없는 만큼 각자 스타일대로 모양을 잡아주면 된다. 똑같은 재료로 만들더라도 각자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다른 개성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집중과 고민 끝에 완성된 핸드 메이드 트리

원데이 클래스 체험은 다들 처음이라는 직원들은 처음에는 약간 딱딱한 분위기였지만, 힐링 수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뒤로 갈수록 서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트리 만들기에 집중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였다. 트리를 만들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강사나 옆 자리 조원에게 질문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며 트리 모양을 잡아 나갔다. 마지막으로 리본, 솔방울, 원예용 철사와 다양한 장식, 오너먼트 볼 등을 활용해 트리를 예쁘게 장식했다. 모두에게 같은 재료가 주어졌음에도 품품 장식을 철사 끝에 꽂아 넣은 사람도 있고, 줄에 꿰어 조명처럼 엮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직접 만든 미니 트리에 메시지를 적은 카드를 더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완성된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정용환 매니저는 “미니 트리를 만들어 여자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제작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임창재 매니저는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새 집에서 맞는 첫 크리스마스를 직접 만든 미니 트리로 장식하게 되어 기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많은 참여자들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긴 했지만 집중하여 만드는 과정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를 잊고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직접 만든 트리로 집을 장식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 ‘소중한 사람에게 손수 만든 트리를 선물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직접 만든 미니 트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기운을 전하는 선물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How To Make Mini X-MAX Tree

측백나무 잎으로 나만의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만들기



1

적당한 크기로 잘라 물에 적신 플로랄폼을 물이 새지 않도록 투명 OPP 비닐로 감싼 후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킨다.



2

1의 바깥쪽에 예쁜 포장지를 감싼 후 리본으로 묶고, 예쁘게 주름을 잡아준다.



3

측백나무 이파리 중 트리의 중심축이 될 가장 길고 예쁜 것을 골라준다. 이파리 끝이 내 몸 방향으로 오게 놓은 자세로 잡고 가지 끝을 대각선으로 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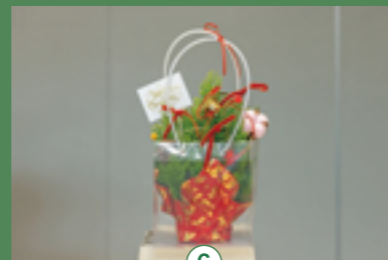
4

자른 가지를 바로 플로랄폼에 1cm가량의 길이로 꽂아준다. 다른 가지들도 차례로 방사형으로 꽂아 트리의 모양을 잡아준다.



5

형태가 잡히면 다양한 오너먼트와 리본 장식 등을 올려 트리를 장식한다.



6

카드 작성 후 투명 봉투에 담아 선물한다.



클래스 참여 소감 & 2024년 새해 소망과 목표



품질물류팀 배진경 매니저

☹️ 참여 소감 |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처음 경험해보는 수업이라 흥미 있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소망&목표 | 다이어트 ㅎㅎ



생산팀 정용환 매니저

☹️ 참여 소감 | 창작에는 정답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답을 찾으려는 것보다 나만의 느낌을 표현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 소망&목표 | 한 해 동안 건강하고 무탈하기를!



Roll 영업팀 임하정 매니저

☹️ 참여 소감 | 생각했던 것보다 만들기 어려웠지만, 재밌고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 소망&목표 | 새해 목표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모았으면 합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합니다.



품질물류팀 전배준 매니저

☹️ 참여 소감 | 처음 해 보니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더 잘 만들 수도...

★ 소망&목표 |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생산품질팀 박동현 매니저

☹️ 참여 소감 |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잠시나마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들기에 집중하다 보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직접 만들어 완성된 트리를 보니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소망&목표 |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합금철사업팀 김도한 매니저

☹️ 참여 소감 |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오로지 트리 만들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소망&목표 | 2024년도에는 모든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기를.



안전환경팀 최진욱 매니저

☹️ 참여 소감 |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즐거웠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소망&목표 | 항상 건강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생산지원팀 김동진 매니저

☹️ 참여 소감 |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리를 받은 사람이 좋아할 생각을 하며 만들다 보니 어느새 빠져들어 만들고 있었습니다.

★ 소망&목표 |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 자기 계발을 통해 스스로의 값어치를 높이기.



합금철사업팀 김현정 매니저

☹️ 참여 소감 | 매우 재미있었고, 집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 소망&목표 | 마음과 몸의 건강



생산팀 이상인 매니저

☹️ 참여 소감 | 작은 트리를 만드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트리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마음이 편한 느낌이 듭니다.

★ 소망&목표 |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



생산지원팀 임창재 매니저

☹️ 참여 소감 | 감사님, 직원분들과 함께 힐링하며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 소망&목표 | 심팩 임직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로또도 걸렸음... 좋겠네요!

심팩인들을 위한 겨울 나들이 스팟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집 안에만 머무르기는 아쉬운 심팩인들을 위해,
따뜻한 공간에서 만나는 실내 전시부터 추울 때 방문하면 더 매력 있는
전국 각지의 관광지까지 다양한 겨울 나들이 장소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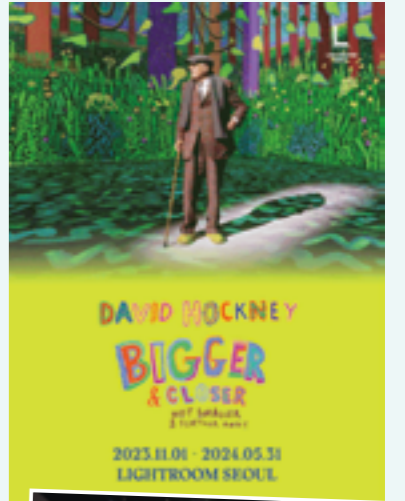
W I N T E R T R I P

데이비드 호크니: Bigger & Closer (not smaller & further away)

영국 팝아트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예술 세계를 미디어 아트로 만날 수 있는 몰입형 전시가 열린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라이트룸서울에서 진행 중인 <David Hockney: Bigger & Closer(not smaller & further away)> 전은 영국 런던에 이어 전 세계 2번째로 열리는 전시로, 데이비드 호크니가 보여준 지난 60년 간의 작품 세계를 회화, 사진, 영상, 오디오와 함께 기획하여 아름답고 완성도 높은 몰입형 전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전시는 현존 작가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해 직접 전시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다는 점이 특별하다. 그의 작품뿐 아니라 작업 과정, 작품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풍부한 콘텐츠에 음악과 조명, 애니메이션을 더해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데이비드 호크니가 아이패드 드로잉으로 작업하는 과정도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마치 관람객이 작가의 등 뒤에서 작업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여기에 더해 데이비드 호크니가 직접 내레이션을 맡아 작품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작가의 작업 방식과 의도를 더욱 직접적으로 느끼며 작가와 함께 작업을 감상하는 듯한 완벽한 몰입형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기간 2024년 5월 31일(금)까지(※ 연중무휴)
시간 관람 회차별 예약제 운영(인원 제한), 50분 관적으로 입장(퇴장 시간 제한 없음)
일~화요일(10:00~19:45, 11회) / 수~토요일(10:00~21:30, 13회)
장소 라이트룸서울(서울 강동구 아리수로61길 103)



에르베 툴레展 색색깔깔 뮤지엄

오랜 세월 독창적인 놀이 기반 그림책을 쓰고 그려온 '창의 천재' 에르베 툴레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다. 그림책과 예술 체험에 순수 미술을 접목한 독창적인 회화, 오브제, 영상 작품, 설치 미술 등 300점의 작품이 공개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선, 동그라미, 낙서, 얼룩 등 시각적 언어로 창작한 신작과 초대형 원화 작품을 국내 최초로 만나볼 수 있다. 상상력, 감성, 창의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여러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오감 전시로, 그녀의 작품들은 우리 안에 머물던 예술 감성을 깨워줄 것이다. 작가의 창의적 발상이 현대 미술과 만나 구현된 작가의 공간, 미디어아트 & 책놀이 공간, 창의적 예술체험 프로그램 등도 준비되어 있다. 전시연계 예술체험 프로그램은 초등부(14~16년생), 유치부(17~19년생)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 도슨트 투어, 예술 체험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시간 등 약 90분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카카오톡 예약하기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재미있게 놀면서 예술을 즐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간 2024년 3월 31일(일)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시간 10:00~19:00(18:00 입장 마감)
장소 서울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3전시실, 제4전시실





포항 호미곶 일출 &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한반도 최동단에 위치한 호미곶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출 명소이다. 호미곶 일출이라 하면 다들 '상생의 손'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담은 사진이 떠오를 것이다. 상생의 손은 새천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국가 행사인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기리는 상징물이다. 육지(호미곶 해맞이 광장)에는 왼손, 바다에는 오른손이 있으며, 새천년을 맞아 모든 국민이 서로를 도우며 살자는 뜻에서 상생을 의미하는 두 손을 세웠다. 근처의 새천년 기념관, 등대박물관 등 관람시설도 함께 둘러볼 만하다.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은 영일만을 끼고 북동쪽으로 쪽 뻗은 한반도 지도의 꼬리 부분을 따라 호미곶까지의 해안선에 이어진 58km의 트레킹 로드다. 기암절벽과 찰랑이는 파도 소리를 따라 아름다운 해안을 무념무상으로 걸을 수 있는 최고의 힐링길이라 할 수 있다. 총 4개 코스로 구분되어 있어 골라 걸을 수 있으며, 4코스의 끝 부분은 호미곶 해맞이 광장 등 관광지와 연결되어 있다.

주소 호미곶해맞이광장(경북포항시남구호미곶면해맞이로136)

POHANG HOMI PENINSULA

4코스 호미길(5.6km, 1시간)
독수리바위→호미곶 관광지

3코스 구룡소길(6.5km, 2시간)
장군바위→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군락→구룡소

2코스 선바우길(6.5km, 1시간 30분)
힌디기→하선대→홍환간이해수욕장

1코스 연오랑세오녀길(6.1km, 1시간 30분)
청림운동장→도구해수욕장→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광양 옥룡사지 동백나무 숲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옥룡사지 동백나무 숲은 백운산(1,222m)의 한 지맥인 백계산(505m) 남쪽에 위치해 있다. 선각국사 도선이 35년간(864~898년) 머물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입적한 곳으로 절을 세울 때 땅의 기운이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동백나무 숲을 조성했다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천연기념물 48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령은 100년 이상, 높이 6~10m, 7천여 본의 동백나무가 사찰지 주변에 넓은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3월말경이면 동백꽃이 만개하여 찾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 주며, 동백나무 숲 사이로 조그맣게 난 숲길을 따라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주소 옥룡사지동백나무숲(전남광양시옥룡면백계길7)



청도 프로방스 '크리스마스 산타마을 빛축제'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 마을을 재현한 청도 프로방스는 겨울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 산타마을 빛축제'를 연다. 어둠이 내리면 화려한 LED 불빛으로 가득한 산타마을에서 산책을 즐기며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산타 요정을 만날 수 있다. 화려한 불빛 아래 낭만이 있는 프로방스 기차길과 예쁜 집들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사진을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

주소 청도프로방스(경북청도군화양읍이슬로272-23)
기간 2월17일(토)까지(※매주수요일휴무)



겨울철 전기 화재 안전사고 예방하기

건조한 겨울철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화재 사고의 위험이 높다.
사무실 및 산업 현장에서의 전기·화재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요령들을 살펴보자.

electrical fire safety



사무실에서



겨울이면 각자 책상 아래 개인 전열기구를 두고 사용하곤 한다. 다만 전열기구 과부하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화상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고,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전열기구를 문어발식으로 꼽지 않도록 한다. 콘센트와 플러그 사이에 먼지가 쌓이고 습기가 차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틈틈이 관리해주어야 한다. 누전과 과전류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도록 누전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열기구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닥에 전도 안전 스위치가 장착된 제품을 선택하면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바로 전원이 차단되어 안전하다. 아무리 추워도 전열기구에 너무 가까이 붙어있다가는 옷에 구멍이 나거나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거리를 두고 사용하자.

공장 및 작업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화재 교육과 소방 조직 편성은 필수다. 기본적인 화재 예방 점검표를 부착하여 수시로 자체 점검을 하고, 공장 내 자위 소방 조직을 편성해 유사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한다. 공장 및 작업장 내 가연성 물질이나 발화 위험 물질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따로 보관함으로써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자. 화재 위험 구역은 라이터 등 화기 사용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흡연은 반드시 작업장 밖 야외 공간이나 흡연실 등 지정 공간에서만 해야 한다. 전기로, 용접기 등 불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에서는 이로 인한 전기 및 화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 내장재 처리, 방화문을 설치하고 대피로를 설정하여 대피로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 두지 않아야 한다.



화재 시 행동 요령

1. 화재를 발견하면 큰 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쳐 화재 사실을 알리고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2.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바깥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땐 옥상으로 이동한다.
3.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에 적신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연기를 피해 낮은 자세로 움직인다.
4. 손잡이를 열어야 할 경우 살짝 만져본 후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어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나갈 수 없다면 연기가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막고 창가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린다.

소화기 사용법

- 초동 진압이 중요한만큼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 위치와 사용방법을 숙지해두자.
1. 소화기를 화재가 난 곳으로 들고 간다.
 2.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3.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한다.
 4. 소화기의 위아래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려준다.

존 도어의 『OKR』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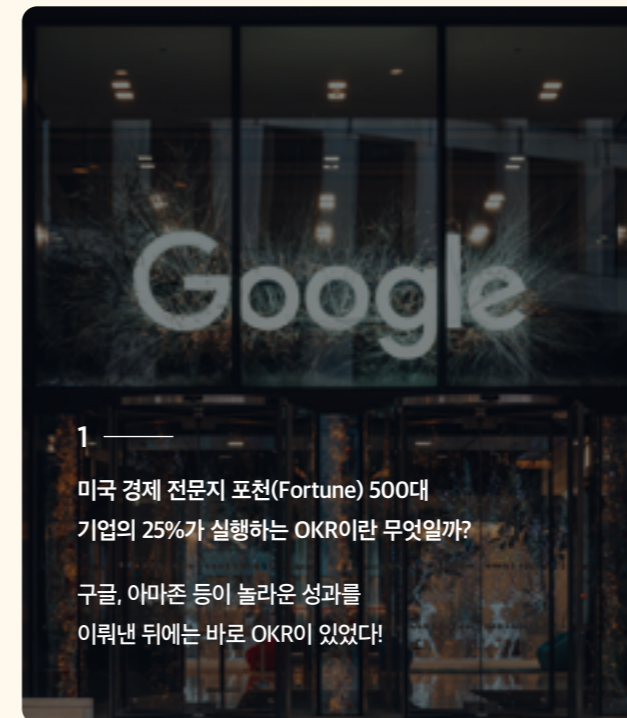


『OKR』 도서 정보
저자: 존 도어
출판: 세종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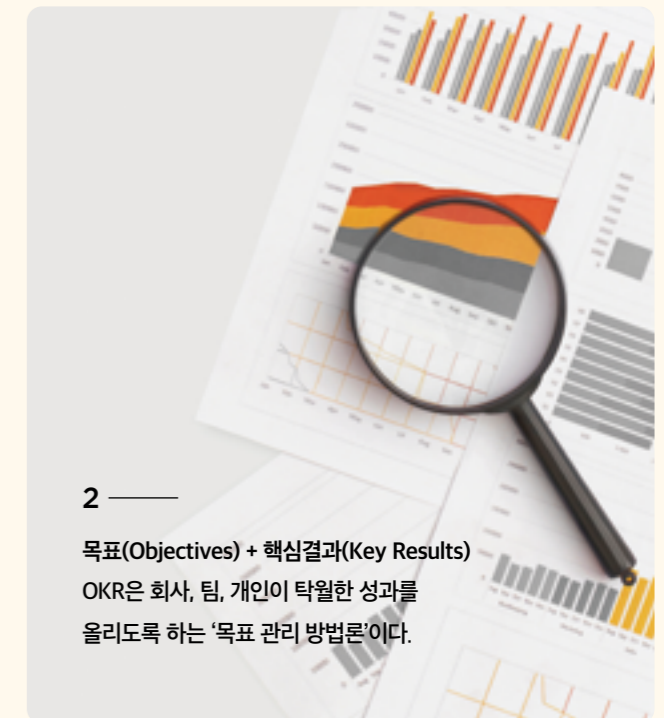
OKR이란 목표(Objectives)와 핵심결과(Key Results)의 약자로 기업과 팀, 혹은 개인이 협력해 목표를 세우기 위한 규약을 의미한다. 전설적인 벤처 투자자 존 도어가 구글에 전수한 OKR은 이제 많은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북클럽'을 통해 존 도어의 책 『OKR』에 대해 살펴보고, OKR을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OKR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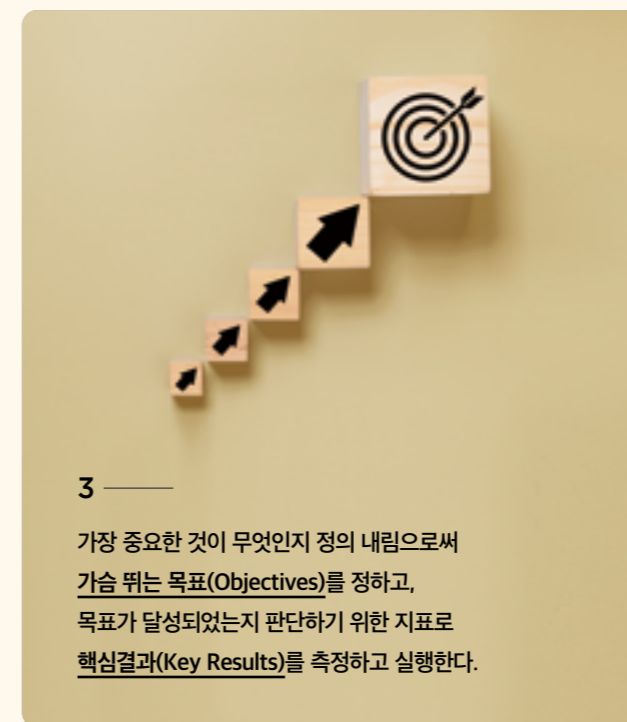
OBJECTIVES / KEY /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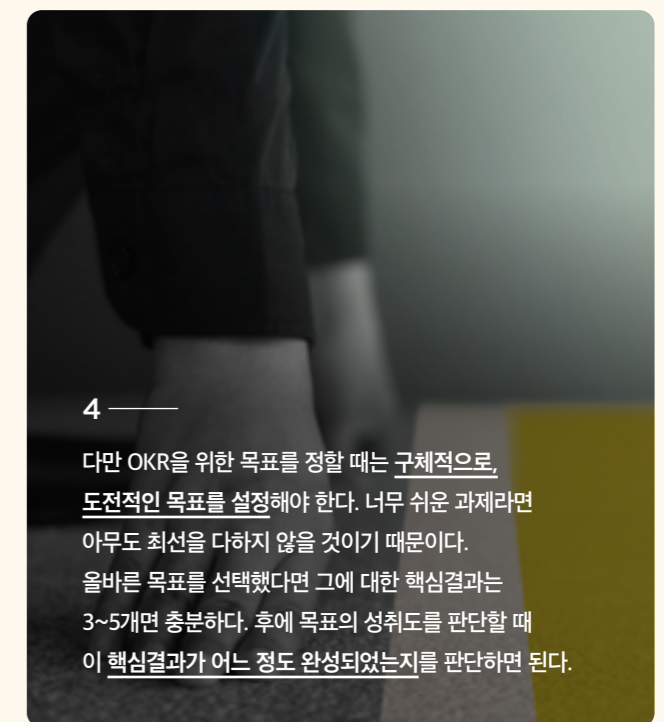
1 ———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Fortune) 500대
기업의 25%가 실행하는 OKR이란 무엇일까?
구글, 아마존 등이 놀라운 성과를
이뤘던 뒤에는 바로 OKR이 있었다!



2 ———
목표(Objectives) + 핵심결과(Key Results)
OKR은 회사, 팀, 개인이 탁월한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목표 관리 방법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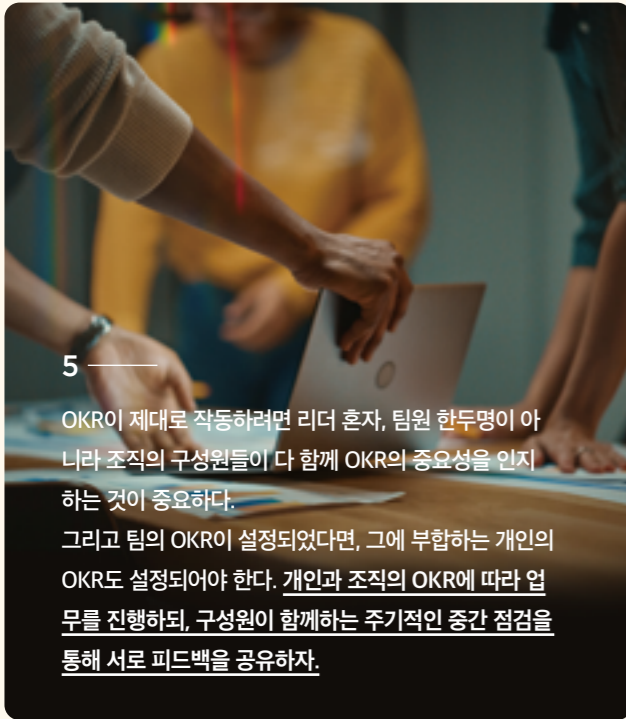


3 ———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의 내림으로써
가슴 뛰는 목표(Objectives)를 정하고,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핵심결과(Key Results)를 측정하고 실행한다.



4 ———
다만 OKR을 위한 목표를 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너무 쉬운 과제라면
아무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목표를 선택했다면 그에 대한 핵심결과는
3~5개면 충분하다. 후에 목표의 성취도를 판단할 때
이 핵심결과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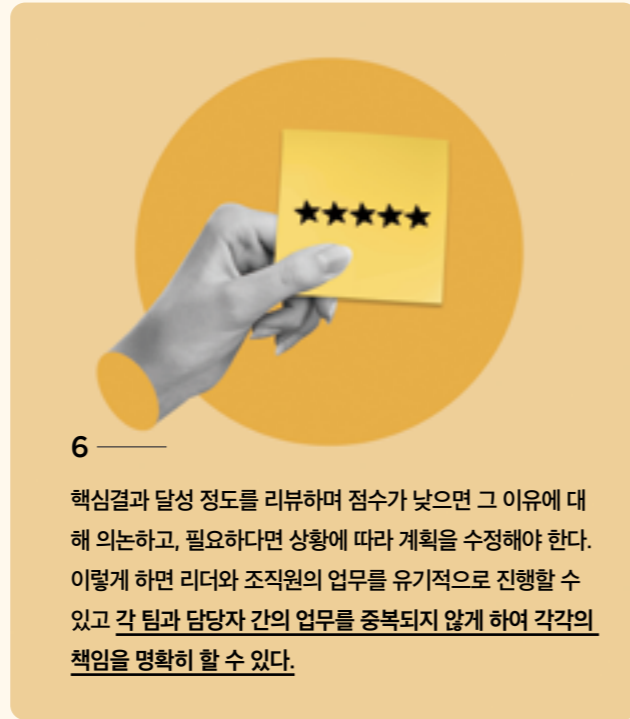
OBJECTIVES / KEY / RESULTS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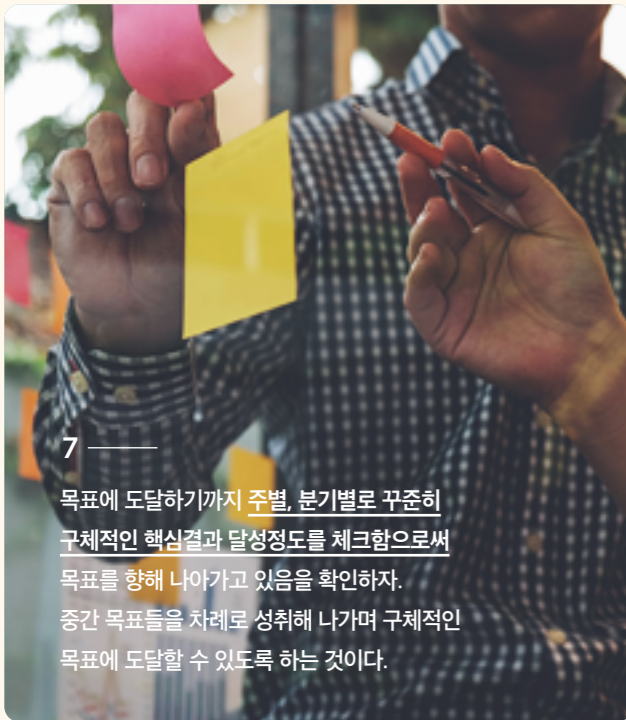
OKR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리더 혼자, 팀원 한두명이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OKR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팀의 OKR이 설정되었다면, 그에 부합하는 개인의 OKR도 설정되어야 한다. 개인과 조직의 OKR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되, 구성원이 함께하는 주기적인 중간 점검을 통해 서로 피드백을 공유하자.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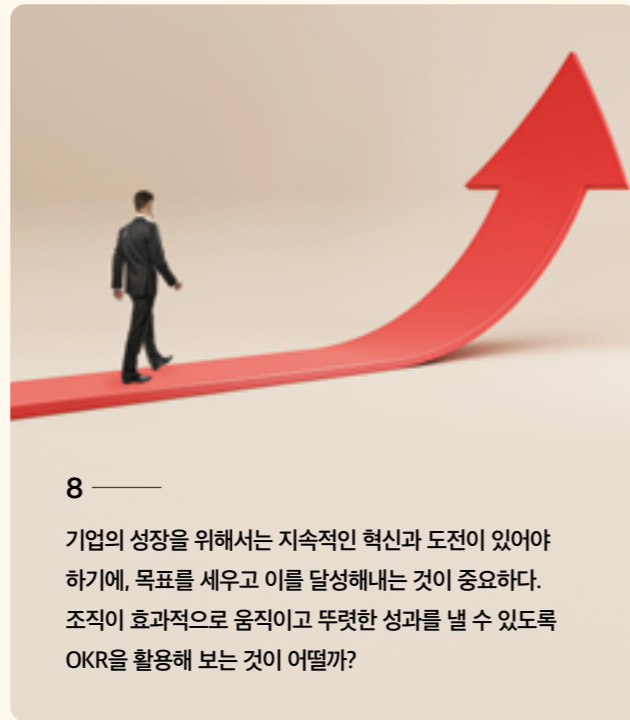
핵심결과 달성 정도를 리뷰하며 점수가 낮으면 그 이유에 대해 의논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리더와 조직원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각 팀과 담당자 간의 업무를 중복되지 않게 하여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7 ———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주별, 분기별로 꾸준히 구체적인 핵심결과 달성정도를 체크함으로써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자.

중간 목표들을 차례로 성취해 나가며 구체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8 ———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이 있어야 하기에,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이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OKR을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까지 OKR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OKR에 대해 본인이 이해한 내용과,
이를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이 페이지를 작성한 후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하단 QR코드로 접속하여 업로드해주세요.
(문서 작성 후 파일을 업로드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출하신 분들 중 10분을 선정하여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1월 31일까지 제출)

Q. OKR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Q. OKR 방식을 토대로, 2023년 한 해 동안의 일을 되돌아 본다면?

Q. 2024년을 맞이해 나의 업무에 OKR을 적용한 목표를 세워봅시다.



SIMPAC그룹 사보 독자 참여 이벤트



SIMPAC그룹 사보 2023년 하반기호를 읽고, 책 속에 숨겨진 힌트를 찾아 아래 퀴즈의 정답과 함께 사보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우측의 QR코드로 접속하여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2024년 1월 31일 응모 건까지)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Q U I Z

1 많은 기업들이 신규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조직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하며, 팀원들과의 관계 형성을 돕는 등의 OO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OOO)

2 2021년 설립되어 철스크랩, 비철금속 등의 구매-재생 및 국내외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이 계열사는 국내 철스크랩 자급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계열사의 이름은?

(SIMPAC OOO)

3 '찾아가는 클래스'에서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를 만들 때 사용한 나무의 이름은?

(OO나무)

4 OKROI란 '목표'와 '이것'의 약자로 회사, 팀, 개인이 탁월한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목표 관리 방법론'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OOOO)



연속 작업으로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동기화 프레스

동기화 PRESS 설비사양

- 라인 구성 : CXS-300 x 1 / CXS-250 x 5
- 라인스피드 : 18~20/min (연속 조건 사용)
- 스트로크 : 330~350mm
- S.P.M : 벡터모터(16~23)
- 자동화 : 단독 ROBOT
- 전기제어 : AB PLC+Touch
- 클러치 : 내장형 습식 C/B
- 급유방식 : 세미 순차분배변
- 기브 : WIDE 6면 기브



생산성 증대

- 70~80% 생산성 향상
- 분당 약 18~20개 생산
- 기존 제품 대비 영업 이익 10% 이상 예상



동기화 기술

- 동기화 프레스의 핵심 기술인 벡터 모터 사용
- 다관절 생산 라인을 동기화하는 것이 목표



신규 시장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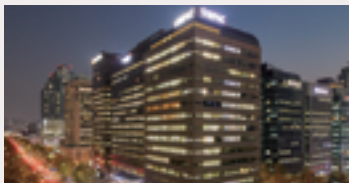
- 기존 제품의 20% 대체 가능
- 1년에 약 30라인, 180여대의 신규 수요 발생

하나된 변화, 새로운 도약

SIMPAC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레스 제작, 합금철 개발 및 생산, 철강 유통 및 가공 기업으로서 관련 사업을 주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SIMPAC을 있게 한 원천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먼저 도전하고 그 도전을 이루어 내는 First Mover의 모습을 앞으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Taking the Next Leap Forward as One

SIMPAC Group



SIMPAC홀딩스

SIMPAC그룹 지주회사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철강 가공 및 유통



SIMPAC홀딩스 리스렉비즈

세계 최고수준의 리사이클링 기업

- 고순도 산화아연 생산



SIMPAC홀딩스 ENG

철강 유통·가공 분야의 신홍강자

- 원재료 수급부터 기계부품 제조까지 종합 철강 유통·가공



SIMPAC 프레스BU

국내 No.1 프레스 메이커

- 기계식, 유압식, 서보 프레스 생산



SIMPAC 메탈BU

국내 Top-tier 합금철 메이커

- 페로망간 및 실리콘망간 합금철 생산
- Roll 가공 및 제조



SIMPAC 트레이딩BU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자재 트레이더

- 비철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원자재를 원산지에서 최종 수요지까지 연결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글로벌 기계 메이커들의 든든한 파트너

- 산업기계 및 감속기 생산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글로벌 합금철 시장의 새로운 리더

- 고순도 페로실리콘 생산



SIMPAC글로벌

최적의철스크랩 공급으로 ESG경영 선도

- 철스크랩 관리 및 공급
- 자원순환경제로 원료로 탄소중립과 ESG 경영 실천